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교장 이희수

여러분에게 한 편의 이야기를 건네기 위해 나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내가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반 미라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얼굴 예쁘고 공부 잘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로서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사는 무남독녀의 부유한 가정환경 탓에 버릇이 없고 혹시나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살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퇴 시간, 미라 혼자 지각을 했습니다. 출석을 다 부른 조퇴 중간쯤에 문을 열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미라야, 왜 늦었어?” 하고 물었는데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세 번을 물어도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그대로 미라는 정말 예의가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교실에 있던 ‘가르침대(지시봉)’로 몇 차례 체벌하였습니다. 교무실에 돌아와 기분이 몹시 상한 채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교시가 끝난 쉬는 시간에 미라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얼마한테 혼이 나고 속이 상해서 늦었고, 선생님께 대답할 기분이 아니어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화 푸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를 미워했던 아까의 그 마음은 순식간에 가시고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 들었습니다. 내가 착하고 예의바른 미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미라에게 그 당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과한 체벌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미라는 나의 체벌을 부당하게 느꼈을 텐데도 착한 행동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 날부터 나는 미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미라의 모든 행동이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진급하여 다른 반이 되어서도 우리는 다정한 사제 간이었고 미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원하던 고등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나는 32년 전의 그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얼마 전 여러분들의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구중을 듣거나 선생님께 오해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설명 드리면 선생님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미라처럼 세월이 흘러도 오래 기억되는 따뜻한 사제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꾸중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부모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지닌 월빙 학교, 뛰어난 덕성과 학력으로 소문난 이 학교의 주인인 여러분들은 부디 더욱 착한 품성과 예의를 지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되었을 32년 전의 미라를 생각하며, 오늘은 늘 복도에서 마주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 웃음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미관(美觀)을 자랑하는 우리 학교

- 외벽공사, 이중창 설치 - 쾌적한 교사(校舍)로 변모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건물 외벽 공사와 이중창 설치 공사가 1월 말에 끝났다. 1993년 건물 준공 이후 자체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는 등의 외벽 보호 공사를 해 왔지만 비가 많이 올 때면 외벽의 균열 때문에 교실 내부에 비가 스며들어 수업에 지장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7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보강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붉은 색 벽돌로 치장한 학교의 모습은 주변에 있는 산들과 조화를 이뤄 훨씬 밝고 화사해졌다. 또한 이중창을 설치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건물 정중앙 지붕에는 시계를 달아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시중시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09학년도 1학기부터는 깔끔하게 변한 학교 모습에 설렘과 기쁨을 느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과 달라진, 자연과 멋지게 어우러지는 학교의 모습에 대해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재학생과 졸업생, 2009학년도에 입학할 신입생들의 추억이 깃들 우리 학교가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정희수, 이서정 기자〉

2009학년도 학생회장단 선출

지난 7월22일 강당에서 본교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학생회장에는 전명진(2-8), 박민준(2-9) 학생이, 1학년 부회장에는 이광현(1-7) 학생이 출마하였다. 투표 결과 986명 중 923명이 투표하여 전명진 학생 368표, 박민준 학생이 268표의 지지를 얻어 각각 학생회장,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한편 이광현 학생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학생회장단은 “학교를 대표하는 자리에 올랐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충분히 반영하는 학생회장단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원오, 김원열 기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08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우수학교	표창장	전라북도교육감
김춘분 행정실장	표창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동화 선생님	전북과학·발명·영재교육유공교원표창장	전라북도교육감
구양삼 선생님	우수교원 표창장	전라북도교육감
김지영 선생님	우수교원 표창장	전주교육장

학생사설

교복변형 NO! NO!

요즘 우리들은 좀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학생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멋 내기에 급급하다. 치마 길이를 줄여 지나치게 짧게 만들고, 블라우스나 와이셔츠 조끼를 몸에 딱 붙게, 짧게 줄여 속옷이 보이고 허리가 드러나는 등 우리에게 교복은 그저 개성이라는 명목 하에 멋 부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지나친 교복 변형으로 인해 교복은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교복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교복은 한 학교의 상징이고, 교복을 입은 우리는 학교를 대표한다. 즉 교복은 학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물인 것이다. 길거리를 다닐 때 교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도 않고, 눈살이 찌푸려지게 교복을 입은 학생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이야?' 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학교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리 학

생들이 <해성중의 상징-교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다운 마음가짐·몸가짐을 바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복이 단정해야 학생으로서의 마음가짐도 곧아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어, 학생다운 교복을 통해 학생으로서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과도한 교복 변형은 신체의 성장과 활동에 불편함을 준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남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다. 교복이 커서 불편한 경우를 제외할 필요 이상의 교복 변형은 성장하는 신체를 억압하여 불편을 주고, 더구나 오랫동안 입을 수도 없게 된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변형된 교복 때문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복은 학생에게 외적·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냥 학생이면 다 입고 다니는 의미 없는, 멋없는 옷이 교복이란 생각을 버리고, 자랑스러운 해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다운



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우리가 입고 다니는 교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른 애들도 다 교복 줄여 입고 다니는데 뭘~'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 먼저 지나친 교복 변형을 자제하여야 한다.

학생의 바른 교복 착용이 교내·외에서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

〈글 김유라 기자, 그림 한미래 기자〉

우리 학교 특색 교실을 소개합니다

영어 전용 교실 (어학실 리모델링)

▶ 배경

2학기에 총 5,300만원의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어학실을 리모델링하였다.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를 영어 전용교실에 갖추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친근감을 향상 시키고자 리모델링을 실시한 것이다.

▶ 시설 현황

터치스크린을 갖춘 전자 칠판, 학생 개개인이 인터넷을 접속하여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니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영어 도서를 총 400여권 이상을 구입했으며, 본교 21회 졸업생 (강 성 : 국제번호사) 및 영어 선생님들로부터도 도서 기증을 받았다. 영어 도서 뿐만 아니라 영자 신문 등이 있어 폭넓은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



〈어학실 전경 모습〉

▶ 영어 교육 소프트웨어 소개

'뿌리 영어' 시스템 :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 누리집(홈페이

지)에 접속하여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다. 특징은 수준별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듣기, 본문 독해, 받아 쓰기, 어휘 공부,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어 문장을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어학실 자료를 이용하는 모습〉

▶ 운영 계획

2009학년도부터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아침 자습 시간, 오후 자습시간에 반 별로 돌아가며 영어 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 분기별로 회원제를 운영하여 점심시간에도 학생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김유라, 정완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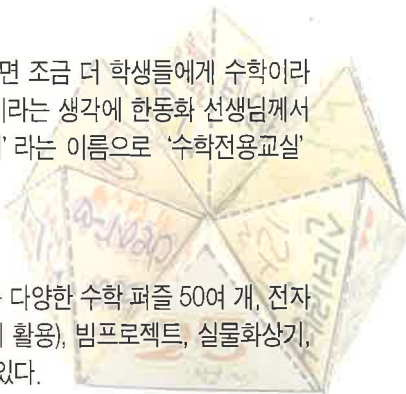
수학 전용 교실- 수학사랑쉼터

▶ 배경

수학만의 특별실을 개설하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이 쉽게 접근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동화 선생님께서 2001년 부터 '수학사랑쉼터' 라는 이름으로 '수학전용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셨다.

▶ 시설 현황

수학 관련 도서 350여 권과 다양한 수학 퍼즐 50여 개, 전자 칠판(함수, 도형 등의 수업에 활용), 빔프로젝트, 실물화상기, 검색용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다.



◎ 지향점

책상에 앉아 수학 공부를 해야만 수학을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것도 '수학'임을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수학사랑쉼터'는 여러 가지 수학 놀이를 통한 수학적 체험과 정규 수업이 접목된 교육 활동을 지향한다.

◎ 운영 계획

한동화(수학)선생님께서 상주하고 계시며, 수학에 관련된 궁금증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여러 수학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김완열, 이원모 기자〉



〈완성된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모습〉

더욱 아늑해진 보건실로 오세요~

지난 2학기에 우리 학교 보건실이 새롭게 바뀌었다. 침대를 건강에 좋고 따뜻한 돌침대대로 바꾸고, 여러 의료 기구도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세족(洗足)대를 들여왔다. 뿐만 아니라 보건실 한쪽에 상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보건 선생님과 마음 속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보건실이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래, 임은지 기자〉

음악 방송은 해성인의 휴식을 싣고~

지난 10월 21일 점심시간부터 음악방송이 시작되었다. 방송부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점심 식사 시간과 청소 시간에 방송을 한다. DJ와 함께 하는 점심 시간의 'sweet music box'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25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정보들을 전해준다. 또, 청소 시간에는 노래만 들려주는 방식으로 15분간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방송부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하니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귀를 쫓긋 세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

〈이아주 기자〉



우리들의 생각

깨끗한 급식 문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누가 저러고 갔지? 자기 행동이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자신이 먹은 걸 스스로 치우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야~”

우측 사진의 모습을 보고 두 학생이 나누는 대화이다.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급식실에서 종종 자신이 먹은 식판을 몰래 식탁 밑이나 의자 위에 숨겨 놓거나, 급식판, 컵, 숟가락, 젓가락, 국 그릇 등을 치우지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놓고 가기도 한다. 그저 ‘나 하나쯤이야…… 다른 애들도 그러던데 뭐’ 하는 무책임한 마음들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부끄러운 행동들이 급식 문화를 오염시켜 학생 스스로에게도 피해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러한 모습에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급식실은 모두가 같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식판을 숨겨놓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선배들이 본보기가 되어 급식을 먹은 다음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 후배들도 따라 배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깨끗이 식사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따끔하게 충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들어서는 급식 후 뒤처리를 잘 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 학생 단 1명이라도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더욱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깨끗한 급식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 < 김유라, 임은지 기자 >



사랑을 나누는 장학금 전달식



지난 9월 8일, 본교무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전달된 장학금 중 경애장학금은 1학년 4반 장인빈 학생, 1학년 2반 이아주 학생, 제자 사랑 운동 장학금은 2학년 7반 김현수 학생, 3학년 9반 김근중 학생이 받았다.

경애장학금은 성심여중 · 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퇴직금을 후진양성을 위해 내놓으신 것이고, 제자 사랑 운동은 본교 선생님들께서 ‘누군가를 위해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자’ 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이 두 장학금 모두 선생님들의 훈훈한 제자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다. 제자들도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사제 간의 따뜻한 사랑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아주 기자 >

아카데미 특강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 사상 체질의 특성 및 그에 따른 공부 방법 소개 -

지난 10월 14일에 『체질에 맞는 공부법』이란 주제(강사: 한의사 송승헌 원장)로 제 3차 학부모 아카데미 강좌가 열렸다. 각 체질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강의 내용에 학부모님들은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우리 학생들도 그 강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 정리 : 정희수, 이아주 기자 >



태양인

특성 : 전체 사상인 중에서 가장 수가 적어 구별하기 어려운 체질
직관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관계에 능함(지도자형)

공부 방법 : 태양인은 한번 배운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
일단 목표를 설정한 다음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소양인

특성 : 체격은 상체의 발육이 좋고 가슴이 넓고 튼튼하지만 하체가 빈약하다.
청천에 약하다. 지구력이 부족하여 싫증을 잘 낸다.

공부 방법 : 순발력이 좋아 토론식 수업이 알맞다. 또한 주의력이 발달하여 초기의 이해가 빠르다. 대신 빨리 알아듣는 반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따라서 복습 위주로 공부하면 좋다.



태음인

특성 : 무엇이든지 잘 먹으며 행동이 느리고 식욕이 왕성하다.
다른 체질에 비해 체구가 크며 뚱뚱하고 뼈대나 목이 굵은 경우도 많다.

공부 방법 : 상황을 설정하여 꼼꼼하게 공부한다. 주의력, 집중력이 모두 뛰어난 편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면 상당히 빠른 학습 증진을 경험할 수 있다.



소음인

특성 : 외모로 보면 얌전하고 온순한 타입으로 얼굴은 달걀 같은 타원형이다.
체격은 보통 작은 편으로 키가 작고 가슴이 좁다.

공부 방법 : 초기 학습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집중력이 강한 편이라 초기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 이후에 응용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뛰어난 면이 있다. 벼락치기는 금물! 기억력이 좋아 예습을 하는 것이 학습의 능력을 올릴 수 있다.

하느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지난 12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본교 성당에서 2008년도 세례식이 열렸다.

이 날 전교생 중 38명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이란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천주교 예식이다. 또 첫 영성체(5명)도 거행되었다. 세례를 받은 38명 학생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 < 양예찬, 김남규 기자 >

'꿈을 가진 나'를 위한 3가지 교훈

- 해성중 · 고 총동창회장님의 강연 -



지난 12월 22일 우리 학교 강당에서 전주 해성중 · 고 총동창회장님(박종택, 7회)의 강연이 있었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 강연에서 겨울 방학 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첫째, 인생의 목표를 정하라. 둘째, 책을 많이 읽어라. 셋째, 줄타동시(峯峯同時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 - 를 기억하라고 하셨다. 이 말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창회장님의 강연 내용을 잘 기억하여,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멋진 해성인이 되길 바란다. < 이지현 기자 >

선생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끔 선생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나요? 학생기자단 은하수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더욱 가까워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참신하고 교훈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답변 3가지씩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선생님께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해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 : 한미래, 정희수 기자, 그림 이서정 기자)

Q1. 학생들이 가장 예뻐 보일 때는 언제인가요?

- 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할 때
- ② 밝게 웃으며 공손히 인사 할 때
- ③ 단정하고 교칙을 잘 지킬 때

기타 : 친구를 위해 희생할 때, 수업 중 집중을 잘 할 때, 선생님을 믿고 따라 줄 때

Q2. 학생들의 행동 중 가장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자기 생각만 하고 친구에게 함부로 할 때
(욕설, 친구에게 폭력행사)
- ②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
- ③ 교칙을 잘 지키지 않을 때

기타 : 함부로 침 뱉을 때,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 때

Q3.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기쁘실 때는 언제인가요?

- ① 졸업생이 잘 되어 찾아올 때
- ② 수업을 재미있어 할 때
- ③ 학생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할 때

기타 :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힘든 내색 않고 따라줄 때

Q4.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실 때는 언제가요?

- ① 학생, 학부모와 오해가 생길 때
- ② 학생들이 탈선, 반항할 때
- ③ 학생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기타 : 학생들이 거짓말 할 때, 학생들에게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Q5.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공부란 무엇인가요?

- ① 공부란 '빛' 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밝혀 주기 때문이다.
- ② 공부란 '무기' 다.
왜냐하면 배운 만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③ 공부란 '마라톤' 이다.
왜냐하면 공부도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Q6. 선생님께서 학창시절 때 졸지 않기 위해 쓰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 ① 헤드뱅잉을 한다.
 - ② 허벅지를 꼬집는다.
 - ③ 머리를 쥐어뜯는다.
- 기타 : 전날 잠을 충분히 잔다. 졸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뜨거나 눈을 뒤집어 본다.
쉬는 시간에 수면 조절을 한다. 서서 수업을 받는다.

Q7.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 ① Enjoy Your Life !
- ②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 ③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삶을 살자.

순교의 현장을 찾아서



지난 10월 25일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우리 교장의 성지 순례를 통해 선조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던 이 행사에는 40여 명의 신자, 예비신자들이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1791년 신해 박해 때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전동 성당 순례를 시작으로 풍남문, 초록바위를 둘러 순교자들의 굳건한 신앙을 마음 깊이 새겼다. 다음으로 1801년 순교한 유항검 가족 동정 부부의 묘소가 있는 치명자산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올라갔다. 정상에 올라 웅기막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순교자의 숨결을 느끼며 나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전주교구 사목활동을 돕는 전주교구청을 방문하였고, 이 곳에서 신앙 체험 학습 시간을 통해 얻은 지식을 퀴즈 대회를 통해 점검할 수 있었다.

이 날 하루, 학생들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남규 기자)

키 작은 내 모습 이제는 안녕~

키가 작아서 불만이십니까?
놀림 받아서 불만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키 크는 비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1. 콧구멍 입구의 아래쪽 부드러운 뼈 있으시죠?
또 엄지발가락의 도톰한 부분! 그 곳들을 눌러보세요.
⇒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도움
2.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
⇒ 오후 11시 ~ 새벽 2시 사이
- 3-1. 성장에 좋은 습관
⇒ 긍정적인 사고, 칭찬, 웃음 짓는 버릇 등
- 3-2. 성장에 나쁜 습관
⇒ 부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비만 등
- 4-1. 키 크게 하는 건강식품
⇒ 멸치, 방어포, 소뼈, 생선, 알, 콩, 베이컨 등
- 4-2. 키 크는데 장애가 되는 식품
⇒ 탄산음료, 인스턴트식품, 커피, 사탕 등
5. 성장에 좋은 운동
⇒ 농구, 줄넘기, 배구, 철봉 등(몸을 짝 펴주는 운동)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대로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마이클 조던도 부럽지 않은 키 크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리 : 양예찬, 임은지 기자)

〈선생님! 이런 말 아시나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은어 BEST 5!

- ① 똥미 : '어이가 없다' 는 뜻. '똥임' 의 오타
예문) "나 예쁘지 않나?" "똥미"
- ② 찼다 : 긍정·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 단어
예문) 긍정적 의미 : "스타크래프트 찼게 재밌어."
(정말, 아주)
부정적 의미 : "휴, 진짜 이번 시험 찼었다."
(어렵다, 망쳤다)
- ③ 님 좀 짱인 듯 : 10대의 감탄 표현.
예문) (전교 1등이 반에서 나왔다. 반 아이들이 그 학생에게 말할길) "님 좀 짱인 듯!"
※ 비슷한 의미로 '킹왕짱' 이 있다.
- ④ 듣보잡 :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란 말의 준말
예문) "콜라 마시면 하루 만에 살 10kg 찌다던데?" "듣보잡"
- ⑤ 간지나다 : '폼 난다, 느낌 난다' 의 의미
예문) "이 옷 어제 샀는데, 어때? 잘 어울려?"
"오~ 간지 지대인데"
※ '지대' - '제대로' 란 뜻의 은어.

〈정리 : 이원모 기자〉

자랑스러운 해성인의 모습

〈한미래 기자〉

